

27_1_한국어_国分洞の前礎石

고쿠부호라의 앞초석[통칭 배꼽돌]

이 돌은, 그 크기로 봐서 사원의 탑 중심 기둥을 지탱하는 초석이 아닐까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.

그러나,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, 실제로

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. 주변에도

사원이 있었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
그러나, 나라 시대[A.D.710-794]에는 주변에

고쿠쇼지 절, 고쿠분지 절, 호라노미야 궁 등이

있었다고 전해지고, 이 초석도 그것들과 관련이

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